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주재 현안회의

전남도, UN 기후주간·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온힘

전라남도는 10일 현안회의를 열어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 및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국제주간,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4월 여수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과 녹색전환 국제주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 역할을 국제사회에 알릴 중요한 국제행사로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선 전남·광주 통합 이후 열리는 첫 국제행사인 여수세계섬박람회가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통합특별시 준비·국고예산 확보·중동사태 비상경제 등 점검 권한대행체제... 공직기강·정치적 중립·공명선거 관리 등 당부

보여줄 중요한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같은 시기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두 세계적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협력 방안도 당부했다.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위한 행정통합 실무도 본격 추진한다. 실국별로 3월 중순까지 통합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5월 말까지 추진하고, 6월 시범 운영을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대민서비스와 행정·재정 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준비할 계획이

다. 국고예산 확보와 관련해서선 도정 핵심 현안이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것과, 전남·광주 통합과 연계해 발굴한 사업의 논리를 보강해 중앙부처 건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황기연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도지사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을 운영하게 됐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준

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 치의 도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제한사항을 전직원이 철저히 지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복수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 산업과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일 '비상경제 대책 TF'를 본격 가동했으며, 10일 오후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염선호 기자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與 8파전

민주 8파전 후끈...국힘, 지원자 '0명', 혁신당 "물색 중"

6·3광주전남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넓어진 운동장 만큼 후보군도 늘어 8파전이 진행중인 반면 야권은 심각한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

1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직 광주광역시 광산구, 3~4선 중의원까지 8명이 경선후보로 등록, 본격적인 한 달간의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경선 후보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신정훈·이계호·정준호·주철현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5명과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인 이병훈 전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예비경선과 본경선, 결선 투표로 이어지는 최대 3단계 경선 과정을 거쳐 4월 중순께 최종 후보를 선정, 6월3일 본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

진보당이 이날 이종욱 민주노동당 광주본부장을 단일 후보로 선정하고, 정지원이 강연미 전 의원을 사실상 내정할 상태인 제1, 2 야당인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후보 선정에 애를 먹

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로 각각 7명과 1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통합단체장 선거 후보 공모에서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재공모나 전략공천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국힘 관계자는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후 2~3명으로 압축한 뒤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접수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 무척 송구하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 불발 후 독자후보를 모색 중이나 녹록치 않다. 조국 대표가 '염두에 둔 후보가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확정된 후보는 없는 상태다.

혁신당 관계자는 "혁신인재영입위원회 차원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혀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정당과 기본소득당, 개혁신당 등 야권 군소정당들은 단체장보다는 지방의회 진출과 정당 지지율 향상에 방점을 찍고 후보군을 물색 중에 있다. /기동취재부

지면안내

- ▶ 이대통령 "물가안정 시급... 조기추경 해야 할 상황" 3면
- ▶ 고흥 굴양식장,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강제출국 시도 9면

건물위생관리사 1급
환경관리전문가 1급

유한드론솔루션

건물의 외벽, 외부 유리창 등 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에너지 효율과 가치를 지키는 최적의 기술 투자입니다.

- 1. 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얼굴이자 방어막입니다.
- 2. 미세먼지, 매연, 산성 오염물은 빗물로 제거되지 않고, 외장재에 달라붙어 변색·부식·균열·누수를 유발합니다.
- 3. 오염 방치를 그대로 두면 단열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 4. 건물 이미지와 자산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5. 정기적인 외벽정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서비스 분야 및 장점

고층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

- 대상 : 아파트(준공청소/관리, 유지보수 등), 오피스텔, 빌딩, 호텔, 병원, 대형카페 외벽
- 로프, 비계 설치 없이 간단하게 즉시 세척 가능
- 인명사고 위험 요소 완전 제거(중대재해 관련 안전에 최적화된 방법)
- 상황에 따라 고압, 저압 분사로 균일하고 깔끔한 세척
- 친환경 세정제로 오염·변색 최소화, 효과적인 건물 유지관리 및 보수 최적화

유리창 드론 청소

- 대상 : 오피스, 대형상가, 병원, 공공건물 등 건물 외부
- 저압 린스(퓨어워터) 분사로 유리 손상 방지
- 미세 오염·먼지 제거, 투명도 향상
- 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품질 관리
- 신속 시공으로 영업 중단 최소화

발전소·설비 청소

- 대상 : 태양광, 수력, 화력, 냉각탑, 변전소 등
- 비접촉 방식으로 설비 손상 위험 '0'
- 드론 자동비행으로 균일한 세척 품질
- 발전 효율 연평균 5~15% 향상 효과
- 설비 가동 중에도 세척 가능

공장 외벽 청소

- 대상 : 산업단지, 물류센터, 제조공장, 식품공장 등
- 기름때, 분진, 오염물 완전 제거
- 광범위한 벽면도 단시간 내 시공
- 도장면 손상 없는 비접촉 세척
- 고소장비 비용 절감

태양광 패널 청소

- 대상 : 옥상형, 산지형, 발전소형 태양광 설비
- 오염 제거로 발전량 10~20% 향상(지역환경, 오염도에 따라 차이있음)
- 당시의 독창적인 퓨어 워터를 사용하여 물자국이 전혀 남지 않음
- (※ 지하수 사용 시 석회, 미네랄 등으로 물자국 남음)
- 표면 손상 없는 저압 미세분사 방식
- 드론 촬영으로 점검 및 관리 데이터 제공
- (태양광 100kw 당 연 평균 최소 약 150만원~최대 700만원 발전수익실현 가능)

시공 전후 사진

문의 0507-1491-1677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180, 1층 101호 | yuhan_drone1@naver.com | yuhandrone_solution